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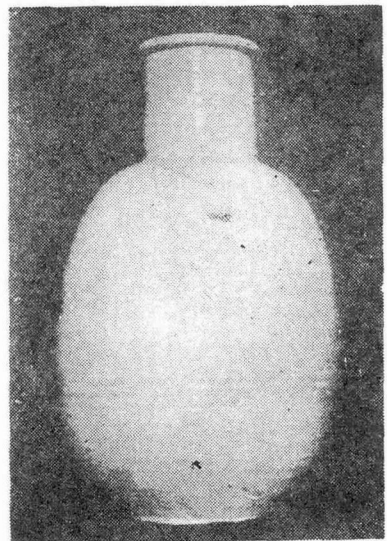
같은 方向의 礎石이 있어 亦是 下枋이 通하고 壁으로 되었음이 推測된 다。以上 推定되는 것을 復言하면 마치 佛國寺 紫霞門과 같이 六間門으로 推定되는 것이며 또 中間 西側으로 다시 長廊이 連續되었던 모양이다。

### 李朝白磁大型長頸壺

全 壺 罈

題하여 李朝白磁長頸壺라 하였으나 큰 瓶으로 보아야 좋을지 길쭉한 큰 항아리로 보아야 좋을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두가지 名稱을 합하여 큰 병항아리(大瓶壺)라고 부르고 싶은 巨大한 珍器로서 別로 보지 못한 것이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이 항아리는 넓은 푸른빛이 섞인 光澤 있는 灰色釉藥이 壺全體에 두껍게 씌워졌으며 큼직하고 두툽하고 묵직한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溫厚壯重한 君子를 對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圓筒型의 굽고 긴 모가지 아래에는 俗稱 高구마型 항아리가 連結되었는데 넓고 얇은 굽다리가 달려서 매우 安定된 感覺을 주고 있다。全體의 均衡이 잘 잡혀서 조금도 不自然한 美가 없으며 精巧한 맛이 전혀 없는 代身 淳朴하고 튼직한 氣品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 항아리는 처음 圓筒型의 口頸部와 어깨로부터 胴體上半부와 胴體下半부로부터 굽다리까지를 三分하여 만든 다음에 이 세 部分을 合하여 連結燒成한 것으로 連結된 마디마디 釉藥이 들쭉 고여서 아래로 흘러 내려온 맛이 더욱 興味가 있어 보이며 圓筒型의 口頸部와 胴體下半部에는 數條의 陽刻橫線을 平行으로 은은히 둘러서 單調로운 大型壺에 適當한 變化를 나타내고 있어 얼른 보기에는 크기만 하고 乾燥無味한 항아리 같이 보이거나 불수록 韻致가 나는 優秀한 作品이라고 하겠다。

서울 近郊出土로 傳해지고 있는 이 항아리는 본래 무엇에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으나 花瓶 或은 酒器로 使用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十七、八世紀頃 京畿道地方 官窯産으로 짐작된다。

- 全體高 四九 cm 最大徑 三一 cm
- 壺口徑 一三·五 cm 모가지高 一一·五 cm
- 굽다리徑 一五 cm 굽다리高 一·四 cm